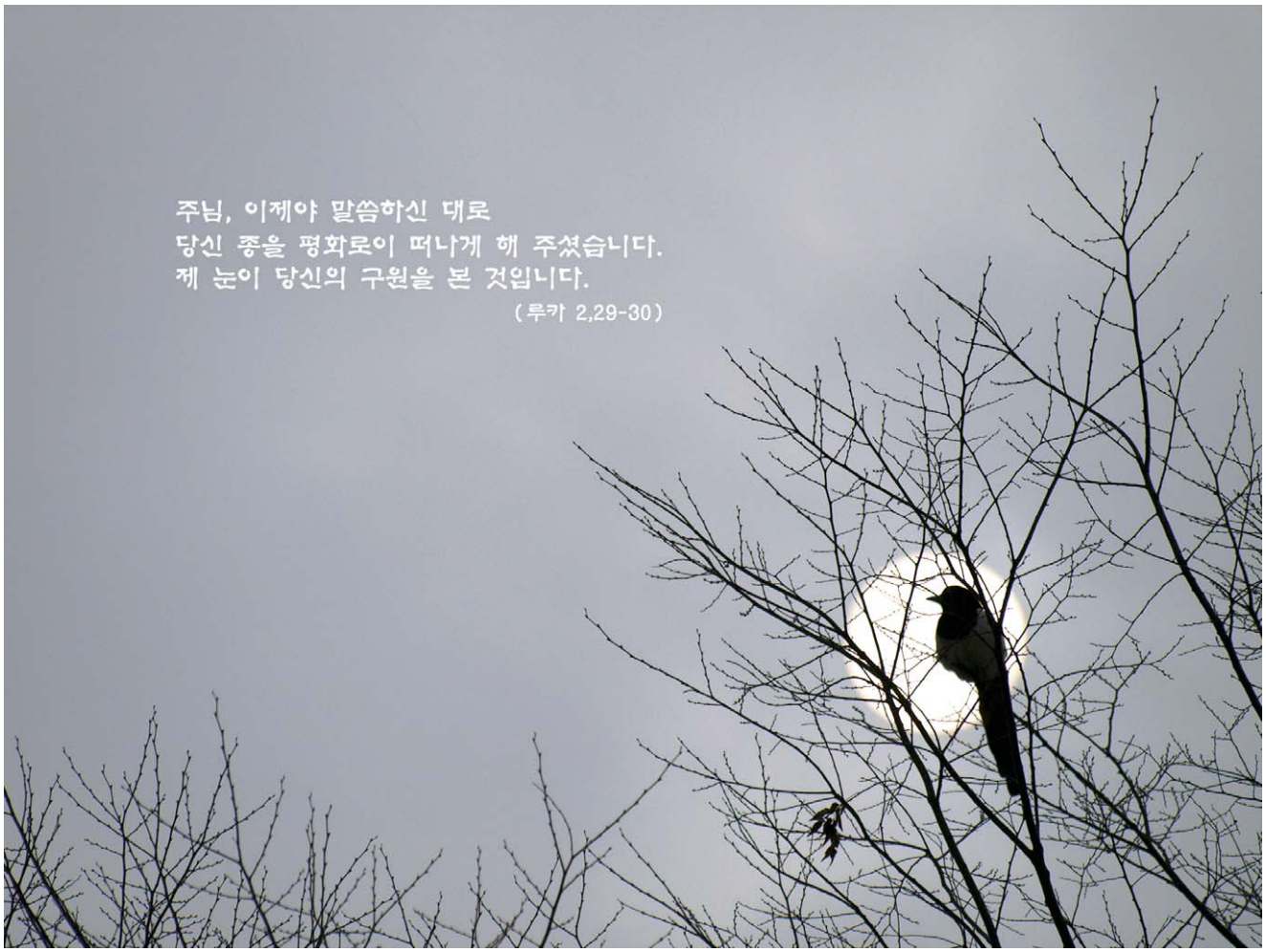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서울주보

2008년 12월28일(나해)
- 제1662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1 가톨릭회관 618호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www.catholic.or.kr



입당송 루카 2,16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1 참조)

⊙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행복하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네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도다.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리라. ⊙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콜로 3,15ㄱ.16ㄱ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 2,22-40 〈또는 2,22.39-40〉

영성체송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셨도다.

사진 묵상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새해 첫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심하고 살아온 일 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새해는 더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 사진: 황인선 바르나바

생명의 말씀

가정 - 사랑 가득한 하느님 나라

박성칠 미카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무처장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교회는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가정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보고 가족과 함께 감사의 정을 나누며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성탄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가정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고 나자렛의 한 가정을 통하여 성장해 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정의 깊은 의미가 자리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란 책에서 노교수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과 안전한 버팀대가 없게 됩니다….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과 염려가 없으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天主是愛 천주시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린 날개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모리 교수의 말을 계속 들어봅니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봐 주고 있는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 입니다. 가족 말고는 그 무엇도, 돈도 명예도 일도 이 안정감을 줄 순 없습니다."

나자렛의 어린 예수님은 당신을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나날이 성장해 가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을 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의 마리아 요셉 가정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성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 역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가정이고 싶습니다.

서로 오래 참아 주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 주는 곳!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곳!
사랑이 가실 줄 모르는 곳!(1코린 13장)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곳!

그런 아름다운 성가정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간장종지

분주한 욕망들이 바쁩니다.
한 해가 가고 온답니다.

이런 날 당신이 그리워지면
어디로 가야할지 가늠해봅니다.

늘 그러셨듯이
밝고 따뜻한 곳은 아니겠지요…

구상렬 하상바오로 | 만화가

말씀의 이삭

며칠 있으면…

김현 요셉 | 방송인 · 여행 연출가

며칠 있으면 이 해도 저문다.

"사람의 마음 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잠언 19,21)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물샐 틈 없이 완벽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다 헛것이다.

〈침묵〉, 〈예수의 생애〉 등을 남긴 일본의 대표적인 가톨릭 소설가 엔도 슈샤쿠. 그가 말년에 쓴 수필집 〈잘 사는 법 잘 죽는 법〉에 실려 있는 죽음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막상 죽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겁이 난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충고한다.

'아름답고 품위 있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 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사는 데만도 분주한 우리에겐 떠나는 자신의 뒷모습까지 신경 쓸 겨를이 사실상 없다.

지난 8월, 내가 다니는 본당의 '멜키올' 이라는 화가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이별하기 전 자신이 직접 만든 상본을 지인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겼는데, 그 상본에 담긴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 중 일부를 여기에 소개해 본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하느님께서 눕혀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 만일 나와의 이별이 빈 자리로 남겨지게 된다면,
그 때는 기억이 되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 나는 당신들의 햇살 가득한 내일을 소망합니다.
나는 충만하게 된 내 삶, 말하자면 좋은 친구들, 좋은 시간,
사랑받았던 사람의 감동을 더 많이 맛보았습니다.
아마 내 시간은 모두 짧은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이제 슬픔으로 그 시간을 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들어 높여 나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지금 나를 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새해가 오고 있는 지금…, 죽음이 곧 새로운 삶임을 깨닫고 기쁘게 보내고 맞이하자. 또 우리 겨레와 나라, 인류 전체가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자.

모든 창조물과의 평화 41

생태사도직 하늘·땅·물·벗

자연이 벗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벌목과 숲 파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고, 아프리카 원시림의 파괴가 두 배나 빨라져 3억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막화와 물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지난 8월 그린란드의 거대빙하 두 개가 갈라지는 등 올 한 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모두 우리들이 하느님 창조물과의 평화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벗이여 나는 기뻤습니다. 한 처음에 그대가 하늘·땅·물에 벗이 되던 날에, 벗이여 나는 주었습니다. 그대가 달라는 모든 것을,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큰 사랑으로, 벗이여 나는 아팠습니다. 하늘·땅·물을 더럽히고 내 벗들의 사랑어린 눈길을 외면할 때에, 벗이여 나는 기다립니다. 그대가 하늘·땅·물의 벗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우리는 모든 창조물들의 '벗' 입니다.

제8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

부부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를 통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난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하며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통해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본연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이 숭고한 가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도한 물질주의에 물든 문화와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인 인격적 사랑과 정신적 가치관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단순한 경제논리로 부부간의 유대를 쉽게 판단하고, 부부애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이혼이라는 가정 공동체의 해체를 넘어 가족 공동체 상호간의 상처와 아픔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단순히 경제적 여건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 가정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연간 전체 혼인건수의 11%(3만8천 건, 2008년 통계청)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름'을 수용하고 '공존'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정이 이러한 상황과 과제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복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삶의 항구한 가르침은 '자기를 내어 줌으로써 참된 자기를 찾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오늘날 가정의 첫 번째 복음적 삶은 혼인성사 안에 들어 있는 사랑의 유대성을 잘 가꾸고 열매 맺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사요, 땅 위에 있는 신적 존재이며,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감실' 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완성된 부부의 사랑으로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왜곡된 사랑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맑은 샘물과 같은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새해에도 계획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황철수** 주교

소식

오늘(12월28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이며 '가정 성화 주간(12월28일~2009년 1월3일)' 이 시작됩니다.

1월1일(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며 '세계 평화의 날' 입니다.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서울주보 특보 발행).

1월4일(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니다.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평화방송 TV 신년대담

평화방송 텔레비전은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2009년 한 해 계획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를 들어보는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신년 대담 내용은 1월4일(일) 주보에 요약 게재합니다.

· 본방송: 1월1일(목) 오후 3시 / 재방송: 1월2일(금) 오후 9시, 4일(일) 오전 10시, 6일(화) 오전 8시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1월 동계 피정

학년	때	곳	문의
중1	1월6일(화)~8일(목)	가평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	010-9954-2123
중2	1월7일(수)~9일(금)	양지 청소년 수련장	010-2577-2123
중3	1월12일(월)~14일(수)	양지 청소년 수련장	010-9961-2123
고1	1월9일(금)~11일(일)	과천 영보 피정의 집	010-9972-2123
고2	1월2일(금)~4일(일)	예수고난회 우이동 명상의 집	010-2742-2123

서울대교구 사제단 신년하례식

1월5일(월) 낮 12시,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을 모시고 사제단 공동 미사와 신년하례식이 거행됩니다(사제들은 장백의, 백색 영대 지참).

2009년 '서울주보' 필진 교체

2009년 1월부터 '서울주보' 의 필진을 교체합니다. 1면의 '성화 해설' 은 정웅모(에밀리오) 신부, 2면의 '묵상 그림' 은 심용식(젬마), 3면의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는 생명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평화화랑: 콩고 - 물람바 성화전

평화화랑은 '콩고 - 물람바 성화전' 을 12월31일(수)~2009년 1월13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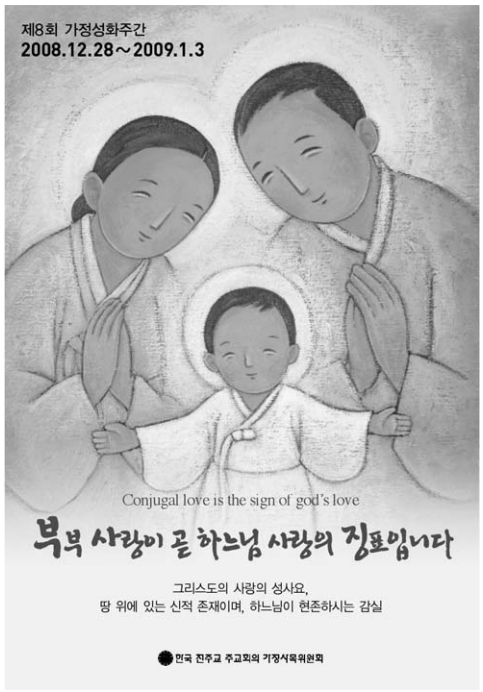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성소후원회 신년미사

· 때, 곳: 1월3일(토) 오후 2시, 명동성당
· 집전: 정진석 추기경 / 문의: 727-2123, 4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가톨릭기도서 105쪽〉

알림

모임

젊은이 쎌 기도 모임(문의: 727-2391, 011-9224-1013)
· 때: 매주(토) 14시30분-18시 / 미사있음
· 곳: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성산동 본원)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3박4일 침묵피정
· 때: **1차** 1월19일(월)-22일(목) **2차** 2월9일(월)-12일(목) / 문의: 990-1004, 2004

청주교구 성령봉사회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 때, 곳: 1월2일(금)-4일(일), 청주교구 성령봉사회관(초정) / 043)213-9103, 010-4400-1344(숙식 제공)

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 '감사와 봉헌 피정'
· 강사: 황성옥 수녀 / 진행: 더스토리와 오동수 도날드(회비: 5만원) / 033)638-4004, 010-9970-0282
· 때: 12월31일(수)-2009년 1월1일(목) 1박2일

연말 밤샘 피정 '용서와 사랑' (문의: 016-9876-0418)
· 대상: 미혼여성(http://cafe.daum.net/pddm)
· 때: 12월31일(수)-1월1일(목) 20시(회비: 5천원)
· 곳: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미아리 본원)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열린 치유 대 피정'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 강사: 한성호 신부
· 미사: 한성호 신부 / 은혜의 시간: 홍택훈 부회장
· 때: 1월3일(토) 12시30분-오후 5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757-1416, 7

송구영신 피정
· 강사: 허성 신부, 이보경, 송광섭 신부(미사)
· 때: 12월30일(화) 10시30분-1월1일(목) 15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과 상주 기도원
· 문의: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
·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 · 류한영 신부)
· 때: 1월3일 · 17일(토) 21시30분-4시(22시30분 미사)
· 곳: 배티성지 강당(성사, 면담) / 043)533-5710

마음을 가볍게 하는 2박3일 피정
· 때, 곳: 1월2일(금)-4일(일), 마리아 피정 센터(부산시 남구 우암2동) / 강사: 최봉도 신부(회비: 11만원)
· 입금계좌: 부산 045-01-037552-0 재)티없으신마리아성심 / 문의: 051)634-0228, 011-9503-0228

작은 예수회 마을 송구영신 대 산 피정
· 지도: 박성구 · 한철호 · 용하성 신부, 정한수 선교사(무료피정, 식사도 사랑 나눔으로 무료임)
· 때: 12월30일(화) 17시-1월1일(목) 13시(2박3일)
· 곳: 작은 예수회 마을(경기도 가평군 마일리 202-2)
· 문의: 010-6255-0155, 010-7764-3885

은혜로운 철야기도회
· 고해성사, 치유상담, 성시간, 미사, 강의, 기도회
· 때, 곳: 매주(금) 22시,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문의: 867-7900

1주	치유기도, 양형영성체	2주	중개기도, 치유기도, 안수예절
3주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회	4주	성체거동
5주	가정미사	주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 **신년 축복 기도회:** 2009년 1월2일(금)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 · 4지구 봉사회 1일 피정
· 문의: 011-1746-2120, 019-332-7764

1월5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의정부성당
	강사: 송정연 선교사(중식제공)
1월14일(수)	오후 8시-익일 1시, 의정부 녹양동성당
	강사: 정중구(꽃동네 치유봉사자)

교육

탈리다쿰센터 다솜 EAPC 2급 자격과정
· 통합적 예술테라피 전문가 교육 EAPC(Expressive Art Psychological Counsselor)과정 / 742-9471, 3
· 때: 1월5일-2월4일 매주(월 · 수) 14시-18시(4주 과정)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동계 집중수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 때, 곳: 1월5일(월) 14시-8일(목) 19시, 성모영보수녀원

서울 카리타스 심리상담센터(문의: 727-2474)
· 심리상담 및 치료: 개인 및 가족갈등 상담(가톨릭회관 501호)

음악과 함께 하는 예술체험 프로젝트	1월14일-3월11일 매주(수) 19시-20시30분(8회기)
가족 사랑 만들기 내 프로젝트	1월12일-3월2일 매주(월) 19시-20시30분(7회기)
아동미술치료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1월14일-3월30일 매주(수-금) 10시-12시(6회기)

에니어그램
· 강사: 윤엘리사벳 / 문의: 016-305-9256
· 곳: 전교 가르멜 수녀원(전철 3호선 경복궁역)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nneagram

1단계	1월10일(토)-11일(일)	**토요일**: 14시-18시 **일요일**: 10시-17시
2단계	1월17일(토)-18일(일)	
3단계	2월1일(일)	

골롬반 선교센터 2009년 상반기 강좌
· 문의: 953-0613(www.columban.or.kr)

3월24일부터 매주(화)	16시 19시30분	영어회화	영어권 출신 사제, 수녀	10회(10만원)
3월25일부터 매주(수)	10시	종교와 신앙	강창헌 선생	8회(4만원)
	13시30분	선교사 만남	선교사	10회(5만원)
3월26일부터 매주(목)	10시	영어 성경	전요한 신부	10회(5만원)
	13시30분	일본어 성경	Sr. 요시오카	10회(5만원)
3월27일부터 매주(금)	10시	자기 계발	변상우 선생	10회(12만원)
	13시30분	기도 생활	오성균 신부	10회(5만원)

미사

청년성령쇄신봉사회(루하) 후원회 미사(문의: 866-6345)
· 때, 곳: 1월9일(금) 11시, 신림동 성령쇄신봉사회관 3층(지도: 전제덕 신부) / 회비 없음(중식 제공)

첫 토요일 신심미사
· 때, 곳: 1월3일(토),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때, 곳: 1월2일(금) 오후 2시30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센터 2층 / 문의: 929-2977

영어로 배우는 성경 공부와 영어 미사
· 때, 곳: 1월4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 문의: 010-2778-7145 오블라띠 선교 수도회

첫 토요 성모성심 가정 봉헌 미사
· 대상: 성모성심안에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 분
· 때, 곳: 1월3일(토) 14시-16시, 새남터성지(전담: 김태건 신부) / 711-2507 성모성심 가나안 봉사회

예수 성심 미사(절두산 후원 로사리오회)
· 전대사를 위한 미사(가정 성화) / 중식제공
· 때, 곳: 1월9일(금) 12시(기도) · 오후 1시(미사), 절두산 순교성지성당(신정연휴 관계로 1월 둘째 금요일로 변경) / 334-4768(야간), 011-205-8003

첫 토요 신심 다락방 미사
· 집전: 이범주 신부(중식 제공) / 문의: 442-8511
· 때: 1월5일(토) 오전 11시(30분 전 묵주기도)
· 곳: 암사동성당(주최) / 전철 8호선 암사역 1번 출구
· **찬양미사**: 매주(화) 오후 8시

모집

서울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여정에서 마리아를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분
· 계좌: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 때, 곳: 3월-11월 매주(금) 14시-17시(주간) · 19시-21시30분(야간),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774-0448, 010-9620-4820(ljsfran@hanmail.net 메일 신청 환영)
· 회비: 25만원(분납가능) / **개강미사:** 3월6일(금) 14시

한국 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 내용: 각 악기별로 단원을 약간명씩 모집(지휘자 · 악장 특별 초빙) / 문의: 011-256-3827

서초여성회관 무료 취업알선
· 내용: 구인 · 구직 상담 및 연계, 가사 · 산모 · 육아도우미 모집(대상: 취업을 원하는 여성 누구나, 여성 인력이 필요한 업체) / 522-0291 황보민 사회복지사

노틀담 몬테소리 교사교육 모집
· 내용: 일상, 감각, 수학, 언어, 문화, 국제몬테 소리 교육과정(강사: 오일명 수녀) / www.ndmonte.com
· 때: 3월-12월 첫째 · 셋째(토) 오전 10시-오후 4시
· 문의: 763-2274, 011-9932-2276 노틀담 몬테소리 학교

시청각통신성서 교육원 학생 모집
· 대상: 고졸정도의 학력 소유자(교파초원)
· 원서교부 인터넷(www.paulinebible.or.kr)전국 바오로딸, 성 바오로 서원 / 1월25일(일)까지
· 내용: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구약 성경 입문과정(2년) / 944-0819~24 성 바오로 딸 수도회

2009년 신앙교육원 제 3기 신입생 모집(일산분원)
· 과정: 2년제 4학기 매주(수 · 금) 오후 2시-4시
·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전체
· 교육장소: 일산 백석동성당(지하 소성당)
· 접수기간: 1월5일(월)-2월6일(금)
· 문의: 031)837-4898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set 참조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 대상: 초등학교 졸업이상 만 15세-26세 남자
· 접수: 2월28일(토)까지(수시접수, 면접전형)
· 교육내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교육비 ·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 부문: 1년과정(기계조립과, 생산기계과, 기계설계제작과 각 30명) / 문의: 828-3509

안내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살레시오 고민 전화상담
· 자녀 및 가정 내 갈등, 고민 들어들임(공휴일 휴무)
·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 841-8443

성심의 집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시설명 변경 안내
· 1월1일자로 성심의 집 치매노인 요양센터(의료복지시설 / 정원: 24명)로 변경, 운영 / 825-7151,2

대치4동성당 부설 '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전화
·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노인, 교정 치료
· 시간: 매주(월~금) 9시-18시, 토(집단상담)
· 문의: 3288-1516 / 온라인 상담(www.bhc.or.kr)

삼성산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관섭 신부
·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한국 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 지휘: 이상철 신부(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
· 연주곡: 모차르트 레퀴엠(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미사곡)
· 때, 곳: 1월13일(화)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및 예매: 1577-3217 한국가톨릭문화원 사무국, 인터파크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팩스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고 전화 접수(교회기관과 단체만 게재 가능)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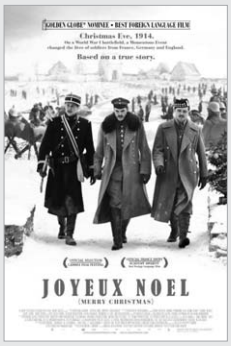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그리스도의 수녀회	1. 4.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성령 선교 수녀회	1. 4.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성 마리아 재속회	1. 4. 14시-17시	미아리 양성소	019-316-6293
성 바오로딸 수도회	1. 3. 15시	미아리 본원	011-232-1611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2. 6. 14시-8. 15시	경북 왜관 본원	019-9353-232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1. 4.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 4. 14시-17시	정릉본원	016-332-2885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1. 4.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1. 4.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수원관구)	1. 4.	청파동 총원	010-9409-0920

문화마당

볼만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1914년 12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스코틀랜드의 군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스코틀랜드 진영에서부터 노래가 시작되고 강제 징집된 독일의 오페라 가수는 트리를 들고 성가를 부르며 참호를 넘습니다. 그는 비록 적군이지만 함께 고통 받는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 군인들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평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성가에 감동한 군인들이 참호에서 뛰쳐나와 전장의 공터로 모여들자 지휘관들은 하루 동안의 휴전협정을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니까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며 전쟁터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위생병으로 참전한 스코틀랜드 신부는 생애 가장 축복받은 미사를 올리게 되고 믿음이 없던 이들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가슴에 새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렇게 한마음으로 보냈던 군인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오자 눈밭에 쓰러져 죽어간 형제와 동료들을 땅에 묻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이 같은 사실이 각국의 고위층에 알려지자 그들은 반역죄와 명령불복종으로 그 평화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 곁에 함께 하고자했던 신부는 문책받아 떠나야합니다. 부대는 해산되거나, 더 위험한 전장으로 재배치됩니다. 조국을 지나가지만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통과해야합니다. 그 기차 속에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크리스마스를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 날 저녁의 감동을 그리워했을까요.

인류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보여준 일탈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나눠보면 어떨까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정혜경 이레네 | 영화평론가

제작: 프랑스 · 독일 · 영국 · 벨기에 · 루마니아, 드라마, 2007년, 115분
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 | **출연:** 다이앤 크루거, 벤노 퓨어만

내 마음속의 다리어리 'Bible & Life 2009'

생활성서 | 6천5백 원

2009년 다이어리로 신·구약 성경 1년 완독 '성경 읽기표'와 매 주일 복음 묵상이 수록되어 있어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가톨릭 주요 기도문과 전례력이 실려 있어 반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주님과 함께(말씀달력) & 말씀과 함께(수첩)

바오로딸 | 6천 원(말씀달력), 2천8백 원(수첩)

'주님과 함께'는 그날의 전례력을 따라 독서나 복음 중에서 뽑은 성경말씀을 가까이 놓고 볼 수 있도록 만든 탁상용 말씀달력이다. '말씀과 함께'는 2009년 달력, 전례시기와 대축일이 표시된 계획표 등이 들어 있는 수첩이다.

읽기와 문제풀이 바오로 서간

안병철 엮음 | 기쁜소식 | 36쪽 | 2천 원

성 바오로 탄생 2천 년 특별 성년을 지내면서 바오로 서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며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바오로 해와 전대사에 대한 설명과 사도 성 바오로에 대한 소개 등이 담겨있다. / 구입문의: 741-7673

승리를 부르는 말씀

최기산 지음 | 위즈앤비즈 | 280쪽 | 1만 원

'행복을 부르는 말씀'에 이은 두 번째 권으로 최기산 주교가 교우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집필한 말씀 묵상집이다. 읽기 쉽게 만들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 구입문의: 031)985-5677

청빈과 독신 그리고 순명

디아무드 오무쿠 지음 | 성찬성 옮김 | 성바오로 | 240쪽 | 1만 원

전통적으로 청빈, 독신(정결), 순명으로 알려져 있는 봉쇄와 활동 수도회 생활의 세 가지 서원에 대해 다룬 책이다. 서원들의 의미를 서원들이 지닌 가치 지향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열정과 회심

박종구 지음 |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 388쪽 | 1만 원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후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초대 교회의 공동체 이야기이다. 사도행전을 통해 힘든 역경을 딛고 성장해 갔던 당시의 공동체를 묵상하며, 영신수련에 따라 체험하는 길을 안내한다. / 구입문의: 717-3869